

김진영선생님 <소설을 읽는 8개의 키워드>

1장~2장 -죽음의 역사

1) 친숙한 죽음:

-12c 중세의 기사문학에서는 '친숙한 죽음'

-기사들과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고 죽을 때가 되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: '오, 신이여, 용기를 주소서, 저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'/ '나는 이제 나의 종말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다' (트리스탄)/ '죽음이 이제 하늘로부터 나의 머리로 내려오는구나' 등등

-죽음에 대한 '내적 확신'

-15세기의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시대이므로 죽음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음에 대한 거부는 여전히 아니다. 병에 걸린 소녀는 거짓 제스처를 쓰면서 죽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악마와 영혼의 계약을 맺는다.

-17세기의 돈 키호테는 망상에 들려 있지만 죽을 때가 되어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는 이성을 되찾는다: '조카 딸아, 저기서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구나.'

-톨스토이는 죽음의 때에 이르러 농부들을 기억한다: '나는 러시아의 농부들처럼 죽으리라': '세 죽음'에서 늙은 마부는, 괜찮으냐고 묻는 하녀에게 대답한다: '그래 죽음이 내 곁에 있어. 이게 죽음이란 말이야'

-친숙한 죽음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, '죽음의 Ritual'을 알고 있었다.

-죽을 때에 이르러 기사들은 '창을 내려 놓고 말에서 내려 땅위에 순순히 들러 눕는다'/ 트리스탄의 시체 앞에서 이졸데는 '동방을 향해 (에루살렘) 머리를 두고 트리스탄 곁에 눕는다.'

-죽음의 침상에 누운 뒤에는 '회상의 의식'이 치루어진다. 사람들과의 작별, 세상을 잊고 신을 기억하는 시간, 신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사면 기도의 시간. 그리고 죽어가는 신체 위에 뿌려지는 용서의 성수.

-그리고 침착한 '기다림의 의식'이 마지막에 치루어진다: '최후의 기도가 끝나자 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다. 백작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.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다...'

-친숙한 죽음의 전통에서 임종의 침실은 공공 장소였다. 그 곳은 마치 광장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. 아이들도 그 곁에 있었다. 18세기가 오기 전까지 임종의 장면을 그리는 회화 속에는 늘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다.

-이 친숙한 죽음의 전통 속에는 과도한 감정의 표현이나 죽음에 대한 드라마틱화가 없었다. 한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모두의 죽음이었고 죽음은 그렇게 긍정되고 용인되고 아무런 히스테리 없이 마무리 되었다.

2) 자신의 죽음

-그러한 친숙한 죽음의 전통 속에서도 그러나 죽음의 공공성이 죽음의 사인성으로 해체되는 또 하나의 전통이 엿갈린다.

-12세기 묘실화에서는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구원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심판노이 저울 위에서 측량되는 장면이 등장한다. 또는 죽어가는 자는 여전히 산 자들에 둘러 싸여 있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신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. 임종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.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격리가 일어난다.

-이 사실은 묘소와 묘비의 개인화와 유언장의 형식에서도 나타난다.

3) 타인의 죽음

-15, 16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예술화를 통해서 죽음을 승화 시키려는 시도다. 그 한 예가 '죽음의 무도 (Todestanz)'의 회화들과 그 변화다. '죽음의 무도화'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세기에 들어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. 과거의 그림들에서 죽음의 사자는 죽어가는 자에게 '손을 대지 않는다.' 그러나 이 세기에 들어 사자는 죽어가는 자를 '강간하기 시작한다.' 죽음의 무도화들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에로스화라는 모티브는 그 성격이 달라진다. 예컨대 성녀가 죽음의 사자에게 살점을 뜯기며 사랑의 황홀경에 빠져들 때 그 안에서 죽음은 '극한의 고통을 주는 형벌'이 되어 사랑의 황홀경이라는 영역 안에서 삶으로부터 소외된다. 이 시기에 죽음은 사랑과 결부되면서 삶으로부터 쫓겨난다. 예컨대 바로크 연극들은 섹스피어의 극이 그렇듯 '사랑하는 사람을 무덤 속으로 밀어 넣는다.'

-성행위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인간을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범법적인 삶으로 타락 시키는 것으로 위험시 되면서 삶으로부터 단절된다.

-죽음이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하는 건 계몽주의의 시대인 18세기부터이다. 이 단절은 '죽음의 낭만화'를 통해서 나타난다. 라마르틴의 '명상 시집'은 죽음의 낭만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. 죽은 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.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19세기적 히스테리의 열정이 개입되어 나타난다. 즉 침상을 둘러싼 사람들은 '울면서 기도하며 참을 수 없는 슬픔의 몸짓을 과도하게 밖으로 드러낸다.' 과도한 슬픔의 의식화라는 히스테리.

-반면 라 페로네 가문의 한 소녀는 결핵으로 죽어 간 자매를 기억하면서 당대의 죽음에 대한 낭만적 정서를 틈에이저적 감상성으로 기록하고 있다: '죽음은 축복이다. 죽음은 우리를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늘로 데려다주니까. 나를 어린아이처럼 늘 웃고 기쁘게 만드는 것, 그것은 죽음이다...'

-또는 마크 트웨인의 '캘리포니아 사람'과 포크너의 '에밀리의 장미'에서 볼 수있는 광기, 즉 죽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이 시기에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다. 삶과 죽음은 철저히 분리되어 죽은 자는 절대 타자가 되고 산자의 낭만화에 의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는 영원한 타자가 된다.

-18세기 죽음에 대한 히스테리적 낭만화는 그러나 유언장의 세속화를 통해서 그 진정한 면모가 드러난다. 과거의 유언장이 죽음의 공공성에 대한 증거였다면 이제 유언장은 남는 자들에 대한 의심과 사유재산에 대한 분배 관리가 그 목적이 된다. 즉 죽어가는 자는 철저하

게 개인되어 자신의 소유권을 남은 자들과 계약한다.

-또 하나의 현상은 묘지에 대한 숭배다. 중세에 교회는 공동묘지였고 죽은 자들은 모두 그곳에 묻혀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인 묘지는 없었다.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묘지는 개인화 되고 '사랑하는 그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'은 특별한 경배의 장소가 된다. 예컨대 섹스피어의 '줄리엣 묘관'은 절대 개인 (절대 애인)의 묘소로 결코 공공화 될 수 없는 사적 성역으로 개인화 된다. 이 묘지의 개인화는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적 계급화의 결과물이다. 군력자와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무덤이 공공영역 속에 속하는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.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건, 그러한 묘지의 개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'시체에 대한 집착'이다. 심지어 당대의 귀족은 죽은 부인을 알코홀 속에 넣어 보관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. 이 집착은 죽음에 대한 거부, 불멸에 대한 환상의 다른 모습이다.

-그러한 묘지 숭배를 통한 시체에의 집착은 묘지라는 물질적 관계만이 아니라 추억에 대한 숭배라는 상상적 관계 속에서도 행해진다. 추억은 그 불멸성의 기능 때문에 죽음의 낭만화에 과도한 애착의 대상이 된다.

-그러한 묘지 숭배와 추억에 대한 숭배는 개인저간 집착에서 공적인 이데올로기로 확장된다. 애국자와 영웅에 대한 묘역과 그를 통한 국가적 추억의 이데올로기화가 그것이다.

-“관 속은 비어 있는데 묘지는 의미로 가득한 장소가 된다.”

4) 금지된 죽음

-친숙했던 죽음 대신 현대와 더불어 죽음은 타부의 대상이 된다. 현대의 죽음에의 타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-우선 '거짓말'이 있다.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에게 그이 죽음을 알리지 않는다. 물론 그건 그를 심리적으로 염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다. 그러나 더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현대적 소외가 작동하는 현상이다. 현대에서 삶의 행복은 언제나 죽음이 제외된 행복이다. 죽음의 삶 안으로의 입장은 따라서 다만 불행일 뿐이다. 이 불행은 죽어가는 자가 누리는 행복한 삶을 기만이며 착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불행으로 만든다.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던 그 죽음 없는 삶을 허위로 만드는 죽음은 당연히 숨겨져야 하는 것이 된다. 죽음은 죽어가는 자로부터도 마지막까지 소외된다. 죽어가는 자는 마지막까지 거짓말 속에서, 죽는 줄도 모르면서 죽는다.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말한다: '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...'

-다음으로 '죽는 장소의 이동'이 있다.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집이 아니라 '병원'에서 죽는다. 죽어가는 자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되어 미리 만들어진 공동묘지로 이송되어 수용된다. 병원으로의 이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짜여진 일종의 죽음 시스템이다.

-병원은 원래 없는 자들이 집에서 죽을 수 없을 때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일종의 노숙자 사망 기관이었다. 그러나 죽음의 타부와 더불어 병원은 비용을 낼 수 있는 자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시장이 되었다. 병원은 죽어가는 자와 '치료'를 매개 시키고 다시 살릴 수 없는 생명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여 '치료한다'.

-'치료'는 그러나 다만 죽음의 경제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. 치료는 의학 테크노컬지

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제공한다. 치료를 통해서 약들은 검증되고 외과술은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며 인체는 그 비밀들이 남김없이 관찰되어 해체된다.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그에 걸 맞는 새로운 의료기계들이 생산되어 구입되며 다시 치료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의 신체에서 그 효과가 점점된다. 더불어 의료비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죽음은 더욱 양극적으로 구분된다.

-한결음 나아가 그러한 병원에서의 고급 기술적 치료는 죽음의 현대적 (자본주의적) 품위와 착종된다. 집에서 죽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 그의 살아 온 삶이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심급이 된다. 병원에서 죽지 못하는 일은 죽어가는 자에게 모욕이 되며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된다.

-마지막으로 '상조행위'가 있다. 죽은 자는 죽어서도 마지막까지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들이 살아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듯이 죽어서도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.

-또한 장례식장에서의 '애도의 억압적 리투알'이 있다. 죽음으로부터 소외된 남은 자는 죽은 자의 주검 앞에서 슬픔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애도는 불가능하다. 그리하여 애도의 이중적 리투알이 전개된다. 하나는 지나 친 슬픔의 제스처. 다란 하나는 과잉된 슬픔의 표현에 대한 제한.

-죽음의 시장화는 죽음을 마지막까지 승화 시키면서 죽음이 사라지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.

-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'잊혀진다.' 죽은 자들은 비로소 그토록 힘들었던 잊혀지기의 리투알로부터 풀려난다.

-그러나 두 사람이 남는다. 하나는 말을 빼앗긴 채 '절대 고독'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. 그리고 어느 한 남은 자가 있다. 마침내 모든 죽음의 절차가 끝났을 때 잠 못 이루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죽은 자를 따라가는 그 어느 한 사람이 있다...

(참고, '죽음의 역사', Ph. Aries, 이종민 역, 동문선)